SK그룹, 하반기 1100명 신규채용

12사 공동으로 9월 1-14일 모집 … SK건설 90명에 SK케미칼 50명

SK그룹은 2005년 하반기에 경력사원 500명을 포함 총 1100명의 대졸 사원을 채용한다고 8월29일 발표했다.

SK그룹은 상반기에 600명을 신규 채용해 2005년 총 채용규모는 사상최대인 1700명에 달할 전망이다.

SK그룹은 SK와 SK텔레콤, SK네트웍스를 비롯한 12개 관계사가 공동으로 9월1일부터 14일까지 SK그룹 채용 사이트(www.joinsk.co.kr)를 통해 채용공고를 내고 지원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이후 10월9일 적성검사 등 필기시험을 실시한 뒤 11월 면접을 진행한다.

특히, 인력구조의 다양성과 창의적 인재 확보 차원에서 지방대 졸업생 비중을 전체 채용규모의 20-30% 선으로 확대하고 여성인력 선발비율도 높이기로 했다.

SK 계열사별로 수립한 대졸 신입사원 채용계획에 따르면, 쿠웨이트 석유화학 프로젝트 수주 등 해외사업이 급신장하고 있는 SK건설이 90명 가량을 채용하고, SK케미칼은 생명과학사업 마케팅 역량 강화를 위해 50명을 뽑는다.

SK C&C는 IT분야 실무능력보다 창의적이고 문제해결 능력을 갖춘 인재의 미래성장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전공의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현재 50명 정도를 채용할 계획이지만 우수인재들이 대거 지원하면 채용규모를 최대 100명까지 늘리기로 했다.

SK그룹은 "2004년 하반기보다 채용규모가 40% 가량 늘었으며, 일자리 창출을 통해 청년실업 해소와 국가경제의 선순환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화학저널 2005/08/30>

Copyright ⓒ 2003 by CMRI 화학경제연구원